

## 제 3 장 학술 활동

### 3.1 학술발표회

#### 3.1.1 1963 ~ 1979

196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 대학에는 수리학을 전공한 전문가가 적었고 또한 상호간의 유대관계도 적었다. 1961년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혁명정부가 경제개발 정책과 국토종합개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자원분야의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몇몇 수리학 담당 교수들이 서울로 모이게 되었다. 그들은 몇 차례의 접촉 결과, 후진 양성도 중요하지만 본인들 자신의 연구분야에서의 발전을 고무시키기 위하여 조직을 결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1963년 8월 5일 그 당시 서울 아현동 소재 경기공전 수리 실험실에서 안수한, 최영박, 김희종, 이원환, 강관원, 이회영, 백은기, 정준석 등이 발기한 수공학연구회는 현재의 본 학회 학술발표회의 모태가 되었다. 1964년 1월 21일 서울대학교에서 제 1회를 시작으로 연 2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제 1회 수공학연구회에서는 안수한 교수가 「무주담 여수토수리모형 실험」에 대해 논문을 발표하였다. 제 2회 발표회는 동아대에서 3회, 4회, 5회는 각각 청구대학, 서울농대, 연세대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논문은 한편씩만 발표되었다.

1966년 7월에 전남대에서 개최된 6회에서는 처음으로 3편의 논문(김희종, 박병기, 이관수)이 발표되었다. 그 외 1968년 8월 3일, 건국대학교 낙원동 분교에서 제 2차 정기총회를 마친 후, 학술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강사로는 수자원개발공사 조사과장이었던 고재웅씨가 「소양강담과 홍수문제」라는 논제로, 정명식 씨가 「자마이카의 상수도 현황」에 관해 강연하였다. 그 후 경향을변갈아 가며 개최하다가 연간 2회씩 발표할 만한 연구논문이 부담이 되기에 연간 1

회로 개최 회수를 축소·조정하였다.

제 12회 수공학연구회는 1970년 7월 30일 인하대에서 개최되어 1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13회~17회 수공학연구회는 영남대, 전남대, 한양대, 동아대에서 개최되었다. 전남대에서 개최된 제 18회 수공학연구회에서는 처음으로 논문초록집이 발간되었다. 1979년 7월 28일 경상대에서 개최된 제 21회 수공학연구회는 수문, 토목, 농공, 기상학회의 공동 후원하에 개최되어 성황을 이루었다.

1980년대 초에는 발표 논문 편수가 매 회마다 15~20편이던 것이 1980년대 후반에는 매 회마다 30여 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자 발표 논문을 분야별로 나누어 분과 발표를 실시하였으며, 분과 수는 매년 논문 편수의 증가와 더불어 늘어나게 되었다. 그 중에서 19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세부 분과는 수리 분과, 수문 분과, 해안·해양 분과, 수자원 분과, 그리고 하천환경 분과 등으로 나누어졌으며, 매 발표회 때마다 발표된 논문의 논문집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특히, 학술발표회가 본 궤도에 올라선 1980년대 후반에는 학술발표회의 논문 발표 참여가 크게 증가하면서 회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고 한국수문학회지에 제출된 논문의 편수도 이와 때를 같이 하여 크게 늘어나는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대체적으로 물 관련 전공자의 증가 및 연구사업의 확대, 그리고 관련 연구조사 기관의 활동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현재는 학회의 중역 이상을 맡고 있는 국내외 전문가의 학회 사랑과 기능 확대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임원진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양적 질적 성장은 우리 수자원 관련 분야의 사회적인 인식도를 크게 넓혔다.

### 3.1.2 1980 ~ 1989

전국적으로 민주화의 열기가 높던 5~6월을 지난 1980년 제 22회 수공학연구발표회는 그렇게 무덥던 8월 1일과 2일 양일간에 걸쳐 청주시에 위치한 토목의 요람 충북대학교에서 휴교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Navier-Stokes 연속방정식을 차분방정식으

로 푸는 경우의 안정성에 대하여」를 비롯한 수리 해석 및 지하수 해석, 그리고 수문량 설계 등에 대한 총 1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당시에는 주로 논문 발표자가 현재 대학이나 관련 분야에서 원로와 중역을 맡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8월 2일에는 연수회가 아침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연수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안수한 교수의 「파동론」과 농업진흥공사 삼교천사업소 윤오섭 소장의 「방조제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애당초 계획에는 현장 견학지로 충주댐 건설 현장이 내정되었으나 당시 1980년 7월 22일 충청북도 보은 지방과 괴산 지방, 그리고 경상북도 문경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입은 보은 수해 지역을 견학하기로 결정하여 수해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수공학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의 의의를 더욱 다졌다. 한편 차기 학술발표회는 윤용남 교수의 흔쾌한 수락으로 육군사관학교가 결정되었다.

1981년 제 23회 수공학연구발표회는 8월 1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발표회에는 참가자가 125명에 이르며 발표 논문 편수는 총 15편이었다. 특히 제 23회 학술발표회에서는 매년 늘어나는 논문을 하루에 발표하여 토론할 수 있도록 3개 분야로 나누어 발표되었다. 이 중 제 1분과는 수리분야로서 「한국하천의 유사량 산정에 관한 연구」등에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제 2분과인 수문분야에서는 「유역특성으로부터 확률 홍수량의 유도에 관한 연구」 등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제 3분과인 수자원 분야에서는 「선형 회귀모형에 의한 하천 월 유출량 추정의 일반화에 관한 연구」등 5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진지한 토론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현장 견학은 충주댐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기술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근대화된 시공 기술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한편, 본 학술발표회에서 이원환 회장은 회장 인사에서 「한·수해의 발생과 그 대책 수립의 책무는 재해대책본·지부의 공무원만이 질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책무요 나아가서는 국민 전부의 책무라 함을 똑똑히 인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은 아직까지도 귀에 쟁쟁하고 다시 한 번 수자원 분야의 종사자에게 책임을 느끼게 한다.

1982년도 제 24회 수공학연구발표회는 유서 깊은 한강변의 중앙대학교 교수회관에서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7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알차게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총 15편이었으며 제 1분과인 수리 분야에서는 개수로의 문제로서 하

구에서 확산 문제를 다룬 「낙동강 하구 조석에 관한 조사 연구(1)」 등이 발표되었고, 제 2 분과인 수문 분야에서는 주로 수문학적인 논문으로 모두 5편이 발표되었다. 특히 강수와 홍수 빈도 해석의 논문이 2편이 발표되었고 「중소하천유역에 있어서의 유효강우량 및 설계수문곡선 결정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어 미국 토양보전국의 SCS 단위도법이 소개되었다. 마지막으로 제 3 분과인 해안·해양 분야에서는 「흐름에 의한 만내의 순환의 수학적 모의모형」의 논문외에 2편이 발표되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충주댐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시공자와 깊은 우애를 다졌다. 그리고 발표회 이후 수문학회 병입을 수공학연구회총회에서 승인하였다.

1983년도 제 25회 수공학연구발표회는 7월 30일과 31일에 걸쳐 이틀 동안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에서 김형주 회장의 인사로 시작되어 연구 논문이 발표가 끝날 때까지 진지하면서도 성대히 개최되었다. 회원 80여명이 참석하여 논문 15편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논문 발표는 제 1부에서 지하수 흐름, 홍수 추적 등에 관한 논문 등이 발표되었고, 제 2부에서는 지구상의 수자원과 저수지 퇴사, 유사 문제, 한강 홍수 예경보, 하천수질 예측 모형의 소개 등과 같은 원론적이면서도 적용된 사례 위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올해 처음으로 개설된 제 1회 연수회의 연수 강좌에는 서울대학교 이길성 교수가 「저수지 최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해석 기법의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현장 견학은 해인사를 방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1984년 제 26회 수공학연구발표회는 7월 6부터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발표회에서는 수리, 수문, 환경 등에 걸쳐 15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제 2회 연수회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윤용남 교수가 「토사의 유송과 침식성수로의 안정설계」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좌를 발표하였다.

논문은 제 1부에서 「세립퇴적물부상과 퇴적에 관한 연구」외에 7편이 발표되었고, 제 2부에서는 「섬진강 일강우량에 대한 월유출량의 시계열모형」 등 8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진지한 토론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부인회를 병행한 현장 견학은 서울특별시에서 공사중인 한강 종합개발 및 탄천 하수처리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여기에서 참가자들은 한강종합개발계획과 그 효과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1985년 제 27회 수공학연구발표회는 7월 27부터 29일까지 3일간 걸쳐 중부권에 위치한 충남대학교에서 157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발표회에서는 늘어나는 논문 편수를 고려하여 분과를 3개로 분리하였으며 수문 분과에서 12편, 하천 및 수자원 분과에서 10편, 그리고 해안 및 항만 분과에서 7편 등 총 27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먼저 수문분과에서는 「합성단위유량도의 Snyder 계수 재조정 : 남한강 수계를 중심으로」를 포함하여 수리 및 수문 해석과 응용 분야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고, 제 2 분과인 하천 및 수자원 분야에서는 「혼합 입경 유사의 한계 소류력」 등과 같은 하천 및 댐 운영 등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특히 새로 건설된 「홍수시 충주댐 운영방안의 개발」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어 댐 운영의 최적화를 기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3 분과인 해안 및 항만 분야에서는 「하구역에 설치된 이안제에 의한 하구지형 변화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1986년 제 28회 수공학연구발표회는 7월 25부터 27일까지 3일간 걸쳐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에 17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첫날에는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지원에 의해 일본에서 2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별 강좌를 발표하였는데, 초청연사는 이론과 학술적인 내용으로 「병렬 계산기에 의한 새로운 부정류 해석」이란 주제로 일본 筑波大學 부학장 椎具博美 박사의 발표와 실무적인 분야로서 일본 국토개발기술연구센터 이사장 小坂忠 이사가 「일본에 있어서의 하천재해와 치수대책에 대하여」라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둘째 날에는 모두 23편의 연구 논문 발표가 있었는데, 3개 분과로 분리되어 발표되었으며, 수문 분과에서 9편, 하천 및 수자원 분과에서 7편, 그리고 해안 및 항만 분과에서 7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논문 발표는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8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열리기로 되어 있는 제 5차 국제수리학회 아시아·태평양지역학술회의(APD-IAHR)의 논문 발표에 대비한 예비 훈련의 뜻도 가진 발표회로서 발표자들의 발표 준비와 논문의 질적 향상이 뚜렷하였다고 본다.

논문 발표회와 병행한 부인회 프로그램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용인 민속촌 견학과 63빌딩 관광 일정이 예정대로 실시되어 부부 동반 프로그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마지막날인 27일에는 우리 나라 대단위 농업용수 개발 사업의 금자탑으로 꼽는 삼교천과

안성천 하구 방조제의 견학이 있어 지역적으로 쉽게 가볼 수 없는 많은 회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1987년 제 29회 수공학연구발표회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걸쳐 부산대학교 공과대학의 재료관 및 제도관에서 186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제 29회 발표회에서는 수공학연구발표회 사상 처음으로 30편을 초과하여 3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늘어나는 논문을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이번에는 4개 분과로 나누어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제 1분과는 일반 수문학으로 「SMEMAX변환에 의한 갈수빈도분석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8편의 논문, 제 2분과는 수리 및 유체역학으로 「개수로에서의 소유사량 산정 방법에 관한 연구」등의 8편, 제 3분과는 수학적 모형 및 System Control로 「치수 방제를 위한 저수지군의 최적 제어」 등의 8편, 마지막으로 제 4분과는 해안·항만으로 「해양 원주 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7편의 논문이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열띤 토론되었다.

더구나 이번에는 일본의 수문학자 7명이 참가하였고 그 중 2명은 논문도 발표하였다. 첫날에 개최된 연수회에서 발표된 특별 강좌는 이승만 기상학회장의 「강우의 형성과정」, 일본 東京大學 교수 玉井信行의 「도시 우수거 및 침투시설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일본 山梨大學 교수 竹內邦良의 「한발지속곡선에 의한 저수지운영」이다.

또한 8월 1일 학술발표회가 진행되는 동안 부인회의 일정으로 인근 통도사를 비롯하여 범어사, 성남사 등을 방문하였다. 8월 2일은 기술견학으로서 1987년 10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 낙동강 하구둑, 낙동강 홍수통제소, 수영에 건설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을 견학하였다.

1988년 제 30회 수공학연구발표회는 역사적인 30회로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걸쳐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131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제 30회 발표회에서는 3개 분과로 나누어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제 1분과는 해안·해양분과로 「불규칙파 입력 Signal의 재현방법」을 포함한 5편의 논문, 제 2분과는 수리·수치해석 및 수자원 System분과 「댐 월류량 증대를 위한 LABYRINTH 웨어의 수리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등의 5편, 그리고 제 3 분과는 일반 수문학으로 「포화대 및 불포화층에 대한 토양수분 흐름의 모델링」 등의 8편이 발표 되었다.

연수회에서는 「지하수 수문 모델링」에 관해 양재만 농진공 지하수 부장, 「추계학 유사량 퇴적」에 대해 中川博次 일본 京都大學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현장 견학은 시화지구 건설 현장(수자원공사), 해양연구소 연구시설, 농진공 반월 수리실험장, 그리고 반월 전철공사장(동아건설)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부인회는 독립기념관 및 온양민속박물관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1989년 제 31회 수공학연구발표회는 7월 28부터 29일까지 이틀에 걸쳐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145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제 31회 발표회에서는 하천환경 분과가 신규로 포함된 4개 분과로 나누어 26편의 논문의 발표가 있었으며, 제 1분과는 수문 분과로 「강수량 계열에 대한 RUNS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7편의 논문, 제 2분과는 수자원 하천환경 분과로 「하천유지용수의 개념에 관한 연구」 등의 7편, 제 3분과는 수리 분과로 「자연하천의 2차원 수치모델」 등의 7편, 그리고 제 4분과는 해안 분과로서 「해파의 입사각, 주기 및 해저경사가 굴절과 회절에 영향」 등의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연수회는 「수자원 개발과 관리」를 주제로 이태교 수자원공사 사장, 「Scientific Appreciation of Groundwater in the Hydrological Cycle」에 대해 Isamu Kayane 일본 筑波大學 교수의 강좌가 있었다.

### 3.1.3 1990 ~ 1996

제 32회 발표회(1990)까지는 「제 ○○회 수공학발표회」로 호칭하던 것을 제 33회 발표회(1991)부터는 「제 ○○회 수공학연구발표회」로 호칭하였고, 학회명칭 변경에 따라 1995년에는 「○○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로 개칭하였다. 또한 사업담당부회장이 관장하던 것을 제 35회 수공학연구발표회부터는 학술담당부회장이 관장토록 하였다. 한편, 제 36회 수공학연구발표회(1994)부터는 산학협동 일환으로 특별(실무)분과를 별도로 신설하여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1990년 7월 27일 인천대학교에서 열린 제 32회 수공학발표회에는 125명이 참석, 수문분과(Ⅰ),(Ⅱ) 10편, 수자원분과(Ⅰ),(Ⅱ) 10편, 수리·해안분과 5편 등 총 25편의 논문이 발표되

었고, 연수회에서는 平野宗夫 일본 九州大學 교수의 「Characteristics of Motion of Density Current Head」에 관한 강연과 이순탁 영남대 교수의 「중국의 하천 - 양자강 삼협댐 계획 및 황하유역의 유사」에 관한 비디오 상영이 있었다.

1991년 7월 1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된 제 33회 발표회에는 191명이 참석하여 28편의 논문이 수문·수자원 분과 15편, 수리·하천·해안분과 13편으로 나뉘어 발표되었다. 또, 연수회에서는 「인공위성 원격탐사에 의한 지구수계 환경감시」에 관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시스템공학연구소의 박경운 박사가, 「The Advancement of Water Resources Education and Program」이라는 주제로 Glen E. Stout 미국 일리노이대 교수가 강연을 하였다.

1992년 7월 10일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소에서 개최된 제 34회 발표회에서는 365명이 참석하고 52편의 논문이 8분과에 걸쳐 발표되는 등 양적으로 급 신장한 모습을 보였다. 분과별 발표현황을 살펴보면 수리 및 환경수리분과 6편, 계산 및 수리실험 분과 7편, 수문분과 6편, 강우해석분과 7편, 도시수문 및 홍수예경보 6편, 유사이송 및 기타 7편, 저수지관리 분과 7편, 용수 및 지하수분과 6편이었다. 이날 특별강연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호소의 특성과 수질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호소수질연구소 유재근 소장의 발표에 이어,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정책 및 관리 현황」에 관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수자원국에 근무하는 정일환 박사의 강연이 있었다.

1993년 7월 10일 제 35회 발표회는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개최되어 305명이 참석, 60편의 논문이 6분과로 나뉘어 발표되었다. 발표현황을 보면 수리분과(Ⅰ) 10편, 수리분과(Ⅱ) 10편, 수문분과(Ⅰ) 10편, 수문분과(Ⅱ) 10편, 수자원분과 10편, 상하수도 및 환경분과 10편이었다. 특별 강연으로는 「The Recent Development in the Field of Hydrosiences in the U. S and Around the World」의 제목으로 Larry W. Mays 미국 아리조나 주립대 교수가 발표하였다.

1994년 7월 9일에 제 36회 수공학연구발표회가 여수수산대학교 해양토목공학과에서 열렸다. 249명이 참석하여 참석인원은 약간 줄었으나, 논문은 71편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1995년의 제 37회 발표회는 수원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3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총 89편의 논문이 10분과에 걸쳐 발표되었으며, 수문분과(Ⅰ) 9편, 수문분과(Ⅱ) 9편, 수자

원분과(Ⅰ) 9편, 수자원분과(Ⅱ) 9편, 수리분과(Ⅰ) 9편, 수리분과(Ⅱ) 9편, 환경수리분과(Ⅰ) 9편, 환경수리 분과(Ⅱ) 10편, 지하수·해안 및 상수도 분과 9편, 가뭄 분과 7편이었다.

1996년 제 38회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는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에서 개최되어 318명이 참석하고, 발표회 사상 처음으로 100편이 넘는 총 103편의 논문이 12분과로 나뉘어 발표되었다. 발표논문은 특별분과 5편, 수리분과(Ⅰ) 11편, 수리분과(Ⅱ) 10편, 수문분과(Ⅰ) 11편, 수문분과(Ⅱ) 10편, 수문분과(Ⅲ) 11편, 수자원분과 11편, 환경분과(Ⅰ) 11편, 환경분과(Ⅱ) 5편, 지하수분과 3편, 상수도분과 7편, 해안분과 8편이었으며 「Water and Environment Resources Management - How to cope with our ever increasing demands?」제목으로 H.H.G Sabenije 박사(IHE, Delft, The Netherlands)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 3.2 심포지엄 및 Workshop

1967년 11월 20일에 제정되어 1980년 2월 15일 개정된 한국수자원학회의 정관 제 2조 본학회의 목적에는 「본 학회는 대기, 지표, 지하 등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물의 기원, 순환 분포 현상을 정량, 정성적으로 다루는 수문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이에 관한 이해 및 응용을 촉구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학회는 수자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과 미진하거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요구되는 전문 분야에 대해 심포지엄 및 Workshop을 개최하였으며 개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2.1 심포지엄

#### (Ⅰ) 수문기상 심포지엄(1980. 7. 5)

본 학회와 한국기상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산학협동재단과 아산재단의 후원으로 학회 사상 처음으로 갖게 된 수문기상 과학 발전에 관한 심포지엄이었다. 여의도에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0여명의 양 학회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 학회 강관원 편집이

사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성좌경 과기처 장관의 격려사와 본 학회 최영박 회장의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동과제로 수문기술에 대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책의 창출로서 전 인류와 사회의 번영에 참여하자는 기조연설이 있었다.

이 심포지엄은 제 1부에서 「수문기상 과학 기술 개발」이란 주제로 윤용남 육군사관학교 교수의 「우리나라 수문분야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정창희 서울대 교수의 「우리나라 기상분야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그리고 홍성길 기상연구소 연구관의 「강우량 자료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어 토론이 있었으며, 제 2부에서는 「수자원 정책 방향」으로 정책적인 과제와 대책에 대해 김영환 건설부 수자원개발과장의 「물의 문제와 개발에 관한 연구」, 박재주 환경청 수질보전국장의 「수질보전대책」 그리고 한수운 건설부 방재계획관의 「치수방재 대책」이 발표되었다. 제 3부에서는 이들 주제와 토론에 대한 종합토론을 다루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 (2) 도시 수문학 심포지엄(1988. 11. 26)

1988년에 개최된 도시 수문학 심포지엄은 도시화에 따른 수문 거동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수리·수문 해석 방법과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82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서 발표된 내용은 건국대 고재웅 교수의 「유수지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서울시 박주병 치수과장의 「서울시의 배수 펌프장 현황」, 김계호 유신설계공단 부사장의 「서울시 하수 및 유수지 설계의 검토」, 서병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실장의 「강우 자료의 분석」, 이종태 경기대 교수의 「도시 유출의 수학적 모형화」, 심명필 인하대 교수의 「새로운 도시 수방 방법의 제안」 6편이었으며 선우중호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종합 토론이 있었다.

#### (3) 물 심포지엄(1991. 7. 5)

한국수자원공사가 주최하고 건설부의 후원과 본 학회, 한국대담학회, 매일경제신문사의 협찬으로 63빌딩 별관 3층에서 개최된 물 문화 창달을 위한 물 심포지엄은 물의 중요성과 경제성, 수자원개발의 필요성, 수환경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우

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물 심포지엄이었다. 물의 경제(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 물의 개발(안경모 박사, 전 교통부장관), 물의 전망(최영박, 고려대 교수), 물의 환경(Takahasi, 전 동경대 교수) 4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진 심포지엄은 사회 각계 각층에서 200명 이상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4) 국제 하천유사 심포지엄(1991. 9. 16~19)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국제 하천유사 심포지엄은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에서 개최되었으며 12개국이 참가하여 기초연설 4편 과 2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5) '94~'95 가뭄심포지엄(1995. 2. 21)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가뭄실태 및 전망에 대해 3편, 가뭄 장·단기 대책에 대해 3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1994년 1995년 연속가뭄에 대한 현황분석과 대책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 3.2.2 Workshop

Workshop은 1993년 1월에 학술위원회 사업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제 2회 Workshop은 사업위원회, 제 3회는 사업위원회와 편집위원회가 맡아 추진하였고, 제 4회부터는 수자원교육 및 국제협력분과위원회가 맡아 추진하고 있다.

개최 장소는 제 1회 한양여자전문대학, 제 2회는 동호공업고등학교였으며, 제 3회부터는 인덕전문대학교에서 계속 실시하고 있다. 1회부터 4회까지의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제 1회 Workshop(1993. 1. 27~28)

한양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1회 Workshop에서는 85명이 참가하였으며 합리식과 우수관거(윤태훈, 한양대학교 교수), ILLUDAS 모형(윤용남, 고려대학교 교수), HEC-2 모형(선우중

호, 서울대학교 교수), QUAL2E 모형(오경두, 육군사관학교 교수) 4개의 주제에 대해 발표가 있었다.

(2) 제 2회 Workshop(1994. 2. 22~23)

동호공업고등학교에서 48명이 참가한 가운데 저수유출관리시스템(이순탁, 영남대학교 교수), GIS와 수문, 수자원관리(김 철, 호남대학교 교수: 조근만, 유니씨시스템 차장) 3개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3) 제 3회 Workshop(1995. 2. 9~10)

인덕전문대학에서 72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천 및 저수지에서의 세굴과 퇴적(HEC-6 모형(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실장: 유권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관로시스템의 준 부정류 해석(Kentucky 모형)(최계운, 시립인천대학교 교수)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4) 제 4회 Workshop(1996. 1. 25~26)

인덕전문대학에서 91명이 참가한 가운데 설계홍수의 추정(김 승,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장: 김남원, 김현준, 김형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도시유역의 배수계통 설계를 위한 SWMM모형(이종태, 경기대학교 교수: 강태호, 김정환, 경기대학교 대학원)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 3.3 학회상

본 학회에서는 1977년 학회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회원에게 주는 공로상, 학술 연구 및 수자원 분야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주는 학술상, 그리고 실무 차원에서 수자원 계획, 설계, 시공, 그리고 유지 관리에 기여한 회원에게 기술상을 시상하였다. 그 후 매년 총회시 이 상을 수여하였으며 지금까지 수상자의 명단은 다음 표와 같다.

<학회상 수상자 명단 >

시 상 일	공 로 상		학 술 상		기 술 상	
77. 11. 26 (10주년)	김윤기 안경모	김해림	최영박 이원환 박성우	김광식 강관원	김운제 김경인 김여택	이도권 김치홍 전철지
79. 3. 27	안수한 김시원 이원환	신동열 김운제				
81. 1. 31	한수은		고재웅		이문혁	
82. 1. 30	최영박	이문섭	윤용남	남선우	이윤식	홍영하
83. 1. 29	이일선		이순탁	윤태훈	장덕환	윤석길
86. 2. 8	오달영					
87. 11. 21 (20주년)	김형주 유태용	성백전 이선호	김희종 박정웅 선우중호	강주복 서승덕	조규화 최상기 이현삼	김계호 신동배
88. 2. 13 (22회총회)	이종남 오세훈	이희영	김치홍 안상진 권오현	임병대 최예환	정인호 이회승	김양일 김경덕
89. 2. 18 (23회총회)	김형수	이재명	심순보	이정규	이성용 한상욱	김영하
90. 2. 17 (24회총회)	강관원 김영환	고재웅	김재한	서병하	이성재	김석원
91. 2. 20 (25회총회)	남선우		이길성		박영일	
92. 2. 22 (26회총회)	윤석길		이종태	전병호	최찬식 이원찬	소봉영
93. 2. 20 (27회총회)	이윤식		이재형	우효섭	박준기	김국일
94. 2. 19 (28회총회)	선우중호	윤용남	이관수 지흥기	고석구	노순안 김무언	김창길
95. 2. 18 (29회총회)	장덕환	이순탁	민병형 김 승	이길춘 최계운	최종근 임충수	한수남 조영호
96. 2. 28 (30회총회)	유태훈	안상진	조원철 유동훈	심명필	정광용 최경준	홍길표 김영환
97. 2. 21 (31회총회)	하진규	고 권오현	안원식 안경수	송재우 박승우	이석우 이문규	국천표

### 3.4 기타 학술활동

#### 1) 국제 수문학 동경심포지움(1975. 12. 1~8)

유역의 물 순환과 그 변화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이 IAHS의 주최로 동경 프린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국내에서는 최영박, 이원환, 윤용남, 이순탁, 선우중호, 윤태훈 교수가 참가하여 학술발표를 하였다.

#### 2) 국제수자원협회(IWRA) 제 2차 회의(1975. 12. 12~16)

국제적 수준의 수자원 계획, 개발, 관리, 과학기술 연구 및 교육분야의 발전, 수자원 관련자와 관련 기관들간의 교류체제 확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수자원협회 제 2차 회의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는 31개국 대표 216명 등 총 564명이 참석하였고, 한국대표로는 처음으로 산업기지개발공사 전철지 수자원 이사가 참석하였다.

#### 3) UN 수자원회의(1977. 3. 14~25)

전세계 인류의 최대 관심사인 환경보전, 인구, 식량공급 및 인류안주(人類安住)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 세계적인 차원에서 UN이 개최해온 일련의 국제회의중의 하나인 UN 수자원회의가 알제틴의 마르델 플라타사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는 116개국과 90여 단체가 참석하였으며, 한국대표단은 김주남 건설부차관, 신동열 건설부 수자원국장, 주 알제틴 김상규 참사관, 남미주재 유태용 건설관, 최영박, 이순탁, 윤용남 교수 등 7명이 참석하였다.

#### 4) IAHR의 수자원개발국제학술회의 (1980. 5. 12~14)

국제수리학회(IAHR)의 아태지회(亞太支會) 제 2차 회의 및 수자원개발국제학술회의가 1980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台北市 Grand Hotel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는 17개국에서 300 여명이 참석하여 총 9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최영박, 윤태훈 교수가 참석하였다.

5) 제 5차 국제수리학회 아·태지역 학술대회

1986년 8월 18~20일의 3일간에 걸쳐 서울의 웨라톤 워커히 호텔에서 제 5차 국제수리학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학술대회〔5th Congress of the Asian and Pacific Regional Division(APD)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Hydraulic Rsearch(IAHR)〕가 거행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세계 18개국에서 제출한 12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국내외 학자 기술자 총 216명이 참석하였다. 본 대회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였고, 본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였다. 국제학술대회로서는 이번 대회가 토목분야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므로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도 많았으나, 국내학자 30여명과 10여개의 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대하게 회의를 치를 수 있었다.

6) 출판물

수공학 용어집이 1987년 학회 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발간을 추진하여 1991년 11월 30일 출간되었다(위원장: 윤태훈, 편찬위원 12명). 한편, 1996년 7월 30일 홍수로 인한 재해지역의 상황조사와 학회의 역할을 협의하고 조사팀을 구성(조사팀 : 최예환(부회장), 전병호(집필책임), 이종태, 김승), 활동의 결과로 「96년 7월 경기·강원 북부지역 홍수피해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7) 유관학회 및 관계 기관과의 학술행사

1990년대에는 학회 자체행사뿐만 아니라 유관학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하고도 왕성한 학술행사를 실시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lt;유관학회 및 관계기관과의 학술행사 내용&gt;

개 회 일	내 용
'91. 10. 15	수문영향 평가제도 도입, 유역의 일괄 관리를 위한 하천청 기구의 필요성 및 하천법 보완 문제 간담회 (참석자 : 이종남 회장의외 7명)
'95. 7. 18	수환경계에서의 자연 및 환경재해 경감 (서울대학교와 공동 주관)
'95. 9. 5	서울시장 면담 및 서울시 홍수재해에 대한 상황청취/토의 (회원 8명 참석)
'96. 11. 15	도시수문 및 우수관리 기술세미나 (수문분과위원회 주관)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 세미나실, 한국토지공사와 공동 주최 초청강연(전병호) 주제발표 6편(김진영, 이재철, 김승, 원석연, 오규창, 김석명)
'96. 10. 2	창립 30주년 기념 편찬사업 집필진 구성/회의 (위원장/윤용남) 한국 수자원학회 30년사(간사/전병호) 한국 수자원개발 30년(간사/김승)